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建築의 種類, 規模 抑制에 對해

崔 昌 奎

(新進建築設計事務所·鍾路)

地球上의 모든 動物들은(家畜을 除外하고) 自己 힘으로 自己들이 살곳(住)을 마련한다. 이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고 本能的인 原始慾望이기도 하다. 自己집, 自己우리, 自己동지라는 것은 남이 들어와서 살 수 없는 自己의 所有權이 있다. 어린 兒孩가 이것은 내것, 그것은 엄마 것 하기 始作할 때 그 머리속에선 成熟해 간다는 一大 變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卽, 所有意識이 일어난다는 것은 成熟해 간다는 뜻이 되고, 成熟해지면 自己의 生活을 營爲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人間生活에 있어서 衣食住는 不可缺의 要素이다. 衣慾 食慾 住慾은 廣義의 生을 營爲하는 本能的인 原始 慾望이다. 그 中에서도 休息과 繁殖의 場인 住居(建築)를 自然을 利用했건 科學을 利用했건 간에 人類歷史를 通해 綿綿히 이어왔으나 途中에서부터 所有라는 原則은 變치 않아도, 自己만이 아닌 家族 或은 남도 使用할 수 있었고, 또는 남에게 빌려도주고, 많은 사람이 같이 살 수도 있는 建築이 우리들 손으로 이루어져서 今日에 이르렀다. 이것은 衣部門에서 樹葉이나 木皮에서 獸皮, 羽毛로 해서 綿布에서 科學布로 걸어 오듯이 住部門에서도 그 本質이 多樣하게 變遷되고 模樣서부터 內容에까지 많은 發展(?)이 되어 왔다. 그러나 人間의 生活單位가 家族을 包含한 家庭이 되었을 때부터 住宅은 그 家庭과 同意物이 되었다. 그 家族數의 多少에 따라 住宅의 規模도 달라지고 特히 近世에선 經濟的 格差如何에 依해 家屋의 規模가 거의 決定지어져갔다. 이렇듯 他建物과 더불어 單位家族의 增大(人口增大)에 따라 住宅의 量은 數的으로 增大해 가니 그들이 屬해 있는 民族이나 國家의 產業面에 建築產業은 莫大한 比重을 가지기 始作했다. 歷史上 各國이 거의 다 經濟面에서 이 建築產業을 無視할 수 없게 되고 보면, 이 建築 產業이야 말로 그 나라의 經濟度를 左右하게 되는 것이다. 現近 各國의 이 建築產業에의 注力을 보면 明確한 일이 되겠다. 近來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6.25로 因한 破毀와 人口의 膨脹으로 住宅難이 極甚했고 그러기에 政府는 各種機構나 機官으로 하여금 이 問題에 注力했고 現今도 注力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遠近의 歷史的 見地에서 今年 2月18日 經濟長官會議에서 決議된 建築種類規模의 規制를 보면,

卽—

가. 50坪 以上の 住宅과 40坪 以上の 아파트 新築規制.

나. 地方自治團體의 廳舍, 國營企業體, 銀行, 公益法人의 事務所의 新築抑制.

다. 劇場, 映畵館, 카바레, 料亭 및 사치性 沐浴場, 娛樂場, 百貨店, 集會展示, 觀覽施設, 四層以上の 事務所 等의 新築不許.

以上과 같은 것이 公布되었다. 避치 못할 經濟的 社會的 近況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理解되면서도, 各項에 對해 若干의 意見이 있는 것이다. 現實打開手段의 豐富性에 反하여, 目的의 不明確性에 關한 原則이랄까. 무릇 建築이 지니고 있는 多樣性에서 그 規模가 그 建築自体를 決定짓는 要素는 못되는 것이고, 質이 問題가 되는 것이지 坪數나 容積이 施設費나 資材 使用의 抑制가 될 것인지는 疑問이 있는 것이다. 그 規模보다 적은 坪數로서 建築費나 資材가 꼭 덜 使用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一面 規制坪數以下의 建物量이 反拗의 으로 많아질 때 全体面에서 消費되는 建築費와 資材量은 어찌될 것인가가 疑心스러워지는 것이고, 50坪 以上の 住宅이나 40坪 以上の 아파트가 現今의 우리 “分”에 넘는 것이라고 본다면 誤算인 것 같다. 即 現近 그 程度의 規模의 建物이 活潑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한 必要나 目的이나 能力이 있다는 것이겠고, 資材難이나 價格 仰騰이 甚해서 能力이 없으면 抑制안해도 自然히 不進해지리라고 生覺된다. 다만 一部 富裕層이나 媒利族의 所行도 있겠지만 一部의 非行으로서 多數가 被害를 받을 必要는 없는 것으로서 解放後 얼핏하면 建築抑制라는 하나의 習慣이랄까. 가장 만만한 것이 建築이라는 惰性같은 느낌도 들거니와 目的과 無關한 要素와 目的에 束縛된 要素들을 總括한 見地에서 論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기가 被害者가 加害者에게 妥協을 하는 人類社會이긴 하지만!

〈나〉 〈다〉項의 境遇 若干의 首肯이 가지만 모든 建設的, 生産的, 原動力의 根本은 知的인 文化的인 底力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認識한다면! 文化的인 것, 藝術的인 것이 生産的이고 建設的이고 非消費的이라는 것을 認識한다면! 〈나〉 〈다〉 項의 種類의 抑制도 考慮할 點은 充分히 있다고 본다. 무릇 사치나 娛樂이란 余裕(物質的 精神的)를 內包하고 있고, 그 余裕란 社會學的 面에서 볼 때엔 社會保障을 意味한다. 人間은 物質生活에 못지않게 精神生活에도 比重을 둔다면 特히 現代人(都市人)의 精神生活은 오직 余裕에서 오는 사치나 娛樂을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사치성이나 娛樂性을 非難하는데는 社會秩序나 犯罪 등 여러 가지 誘發을 걱정함도 있겠지만 가장 큰 理由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道德性이나 倫理度가 急變해 가는 現生活樣式을 따라가지 못하는 格差에서이고 加速만 되어가는 現代生活을 하는 우리의 道德性과 倫理性은 變하는 速度가 너무도 느리기 때문에 모든 社會問題가 여기서부터 시작 된다.

이 問題의 解決은 現代生活의 變化速度를 制御하든지 道德과 倫理의 變化速度를 加速시키는 수 밖에 없다. 兩者가 並行해서 進行한다면 이 地球는 樂園이 될 것이다. 事事件件에 建築抑制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其他 어려운 社會問題도 自動的으로 霧散되고 名實共히 地上樂園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解決은 歷史上 이때까지 試圖했거나 解決한 政治家나 偉人은 없었다. 바로 이것이 問題인 것이다. 이 問題야말로 建築抑制같은 것에 比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重大한 問題인 것이다.

서울특별시서래동구합동21의22

유진건축사무소
(73) 6047 김 병 일

公 日 坤

日坤建築研究所·龍山区 二村洞

과거에도 50평 또는 100평 이상의 住宅建築은 주택채권 또는 세금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억제는 되어왔다. 이는 합리적인 住生活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규모가 크거나 사치스러운 建築을 배제기 위한 조치이었으리라.

그러던 것이 작금에는 住宅建築은 50평 이상은 금지되었다. 住宅建築의 50평 이상 금지는 물론 우리생활은 입산금지, 주차금지, 출입금지, 통행금지, 사용금지, 저수지 낚시금지 등등의 금지가 너무 많아 금지라는 숲속에서 전전공공 교묘히 빠져나가며 살아가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자유경제사회의 특징인 활발한 제반 활동들이 금지로 인해 주춤주춤 되는 것 같으며 생활인의 자세가 의기소침해 지는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급하는 「먹는다」는 것과 「쉰다」, 「잔다」, 「배설한다」는 것인데 이 최소한의 행동은 個人差와 시간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매일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만으로는 육체가 살아있고, 에너지 보급에 불과하며 實際生活에 있어서는 식사, 휴식, 배설, 세면, 목욕, 생식, 육아 등의 사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야 한다.

原始時代에 있어서는 一室에서 炊事와 食事 그리고 談笑와 休息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이와같은 행동이 각각 별도의 室에서 프라이버시를 갖고 행해지며 또 사용하는 기구 설비도 각각 그 室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량 발전시켜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이와같이 生活의 독립을 지향하고 住生活이 分化되는 반면 도시생활에 있어서 일체의 공공시설 분야는 共同化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있다.

실제로 17~25평의 小住宅에서 불편없이 살 수 있는 핵가족이 있는가 하면, 식구가 10명 안팎이 되고 크고작은 모임을 자주 갖게 되는 집에서는 50평, 100평 이상의 住宅이 필요하게 되어, 마치 참새 등우리에 비둘기나 독수리가 살아야 하는 비유가 되기도 한다. 이는 오히려 지나친 제한에서 오는 부조리의 결과로 불법을 조장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다.

세계적인 원자재난, 경제활동의 저하로 인한 힘겨운 상황아래에서 조처된 住宅建築 50평이하 제한은 부득이한 조처이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시일안에 완화되어야겠다.

혼하지는 않으나 간혹 적어도 100평 이상의 住宅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합리적이지 아닌 대규모 住宅建築은 마땅히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으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꼭 대규모의 住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무겁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반면에 建築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20평규모의 住宅으로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쓸데없이 50평으로 짓게 됨을 방지하게 되고, 대규모의 집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규모있는 住生活을 계획하게 해 주는 적절한 建築行政이 될 것 같다.

劉 永 鳳

創一社建築研究所(冠岳區 新林洞)

建築行政의 側面에서 생각할 때 問題點이 너무 많다. 建築行政이란 百年大計의 立場에서 검토하고 研究하여 실행해야 한다. 法은 있고 行政이 없다면 人體構造로 生覺할 때, 머리는 있으나 손 발 없는 불구에 불과할 것이며, 系統이 서지 않을 것이다.

問題는 장구한 建築行政의 不在에서 建築억제니 不許可니 하는 問題가 생긴 줄 안다. 建築資材의 品貴, 인플레이션, 부동산 투자붐 등의 이유는 建築을 억제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國家方針에 맞지 않을 때, 적절한 課稅로써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량의 建築物이 부족한 現時點에서 今般 發表한 不許可조치로 國家에 어떠한 利益이 있겠는지? 民間建築투자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흡수 되는지? 확실한 答은 알 수 없으나 建築은 적극 장려하여야 될 줄 생각한다. 建築의 發展은 곧 國家의 發展이요, 모든 分野를 向上시키며 生動하게 한다.

우리는 70年度初 建築不景氣의 쓰라림을 피부로 느끼지 않았는가! 不健全한 豪華住宅을 踏하기 前에 建築行政에 對한 모순點은 없었는가 生覺해 보았는지……? 흠뻑 돌집보다 못한 아파트가 5,6年余에 撤去다 보강이다 야단법석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들의 後孫들에게 물려 줄 實用的인 값진 遺産을 위하여서도 實用的인 建築行政을 올바르게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머리와 손발이 一體가 되어 움직일 때 명랑한 建築行政은 이룩되고 不條理현상은 없어지며, 不許可 소동은 나지 않게 되겠기 말이다. 하도 許可니 不許可니 抑制니 말도 많아 建築行政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設計依賴를 받기 전에 市庁으로 區庁으로 問議를 해 봐야 하는 판이니 딱도 하다. 依賴人에게 “不許可됩니다” “建築許可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겠소” 한다. “許可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許可받을 수 있는 범위대로 해 주시요” “그 후는 우리네가 알아서 하겠소” 이렇게 되면 얼마뉘엔 고발이다, 철거다 하니 一大 소동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國家의 재산이나 個人財産이나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제발 建築法 테두리 안에서 建築行政을 철저히 해 주면 좋으련만……. 萬一 建築法의 모순點이 있으면 法改正을 하면 될 것이요, 指示, 折制의 方法따윈 하지 안했으면 좋겠다. 오늘날 不許可 措置가 一時的인 것으로 생각은되나 既存建物의 경우 生産的 面에서 必要不可分 한데 1坪의 增築 改修도 할 수 없다고 한 措置는 矛盾點이 너무 크다고 본다. 심사 숙고한 點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法은 平等함으로 善意의 被害者가 있지 않나 充分한 배려가 요구된다. 建築은 個人的 財産, 國家의 財産 과 直結됨으로 偏見은 없는지, 行政當局者는 國民의 편에서 生覺해 주기 바라며, 하루 빨리 建築抑制의 措置가 一掃되어, 必要한 建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建築士 들은 質 높은 建築物을 세우는데 研究 努力해야 되지 않겠는가…